

새 세기 2010년대 미제의 아시아중시전략과 그 침략적본질

심 경 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수행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차지하고있는 중요성과 관련된다.

중요전략적지점들을 장악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한시도 중단된적이 없으며 힘에 의한 세계제패는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는 미제의 야망이다.

미제는 세계제패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장악하는것을 첫째가는 고리로, 명줄로 삼고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와 종래의 유럽중시전략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아시아중시전략을 수립하였다.

2011년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힐러리는 《미국의 태평양세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세계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지역의 발전이 미국의 경제적 및 전략적리해관계에 사활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태평양》은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해왔지만 미국은 이 지역이 전략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질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있다고 하면서 광대한 이 지역이 세계경제와 정치의 견인차역할을 할것이며 21세기는 《미국의 태평양시대》로 될것이라고 떠벌이었다.

2011년 11월 17일 오바마는 오스트랄리아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부터의 미군철수에 립각하여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둘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아시아를 중시할 전략적기도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전후로 힐러리는 뉴욕경제구락부연설과 호노룰루강연 등 세차례에 걸쳐 《아시아복귀》전략을 공식 밝혔다. 그는 2011년 11월 10일 하와이의 호노룰루에서 한 강연에서 미국의 외교경제정책의 비중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길 의향을 표명하고 21세기는 《미국의 태평양세기로 될것》이라고 력설하였으며 《미래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관계되며 미래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에 달려있다. 그 어느 국가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하였다.

미국은 2012년 1월 5일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도적지위 유지: 21세기 국방에서의 우선적인 임무》라는 제목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방정책의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리였다.

2013년부터 집권 2기에 들어선 오바마행정부는 《아시아복귀》전략에 기초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을 내놓았다.

2013년 4월 중순 미국무장관 케리는 일본도쿄공업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을 전면적으로 밝히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정치외교, 경제, 안보 등 분야의 존재감을 보다 강화할것이라고 력설하고 이것이 미국의 《태평양꿈》이라고 하였다.

케리가 밝힌데 의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은 단순히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 집중된 힘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려 미국이 아시아문제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방장관은 2013년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을 2020년까지 기어이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미국대통령 국가안보문제담당 보좌관인 라이스는 2013년 11월 20일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강연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미국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을 오바마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주추돌이라고 묘사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새 세기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명줄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걸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전략적목표로 삼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미제의 《아시아복귀》전략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호상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있으며 과거의 유럽중시전략과 대비되는 새 세기 아시아중시전략을 이루고있다.

미제의 《아시아복귀》라는 말은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침략책동을 일정한 시기에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력사적으로 보면 아시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언제 한번 중단된적이 없었다.

미제의 《아시아복귀》라고 할 때 그것은 역대 미행정부의 대외전략상요구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중 어느쪽을 더 중시하는가 하는 것을 논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미제는 다만 전략상의 견지에서 유럽과 아시아사이의 균형을 조정해왔을뿐이다.

미제는 제1차 세계대전시기까지는 유럽을 중시하였다면 제2차 세계대전부터 랭전시기까지는 아시아보다 유럽쪽을 다소 중시하였으며 랭전종식직후시기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다 같이 중시하였다. 실례로 미제는 랭전종식직후 해군공격함대의 60%를 대서양에 배치하였다면 20세기말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똑같이, 일부 경우에는 태평양에 더 많이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군사연습의 3분의 1을 아시아와 그 주변지역에서 벌리었다.

이것은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의 중심이 유럽으로부터 아시아에로 점차적으로 옮겨왔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 완전히 아시아에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미제의 아시아중시전략은 그 내용상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침략전략이다.

새 세기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은 군사동맹들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군사분야뿐만아니라 정치외교, 경제무역 등 모든 측면에서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할 것을 노린 포괄적인 침략전략이다.

미제의 아시아중시전략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여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주의전략이다.

미국이 제국주의연합세력까지 이끌고 사회주의조선을 단숨에 압살해보려고 오래동안 기승을 부려왔으나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곧바른 길로 걸어왔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에도 우리 공화국은 의연히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했다고 환성을 올리던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으로 되며 특히 미제는 이것을 방임할수 없는 사태발전으로 보았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의 보루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적판도에서 사회주의

의 재생을 추동하는 중심으로 되고있는데서도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평양선언은 사회주의의 재생과 종국적승리를 위한 국제적운동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선언으로,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단결과 투쟁의 전투적기치로 되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북조선은 동서방의 극적인 변화에 조금도 구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완강하게 나오고있는 유일한 사회주의보루》, 《북조선은 앞으로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적판도에서 다시 사회주의재생을 몰아올 가장 영향력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라고 전하였다.

지구상에 자본주의만이 존재하는 《1극세계》를 추구하는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아시아의 선두에서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승리적전진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려워 그때 벌써 조선을 저들의 시야에 넣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미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공화국을 세계제패전략수행의 첫자리에 놓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고있으며 어떻게 하나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미제의 아시아중시전략은 다음으로 무력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침략전략, 전쟁전략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21세기에 미국에 도전해나올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적수들이 밀집되어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인된 핵보유국중 5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이고있는 브릭스나라 5개중 3개, 20개국그루빠성원국들의 절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나라들이다.

이로부터 미제는 새 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을 결정하고 군사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2012년 6월 2일 당시 미국방장관이었던 파네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에 따라 미군무력을 동아시아지역에 이전, 배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제는 2020년에 가서 태평양과 대서양에 배치된 미해군무력비율을 현재의 50%대 50%로부터 60%대 40%로 하며 태평양에 미항공모함 11척중 6척과 순양함, 구축함, 연안전투함, 잠수함의 대부분을 배치할것이라고 한다. 파네타는 연설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미해병대 제1원정대와 제3원정대, 미육군 제25보병사단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재배치하여 이 지역에 주둔하는 지상무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해외주둔 미공군병력의 60%를 이곳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하였다.

미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미군무력을 남조선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면서 2012년 웰남전쟁후 처음으로 오스트랄리아에 미군을 배치하였다.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주둔지는 남조선과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오스트랄리아 등지로 확대되었다.

미제의 무력증강책동에 의하여 오늘 이 지역에는 미항공모함 11척중 6척이 전개되고 560개의 군사기지가 배치되었으며 그밖에 각종 함선 200여척, 핵무기 6 500여개 등이 전개되어있다.

미제는 아시아중시전략에 따라 남조선호전광들과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

습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1986년부터 시작된 미일공동통합연습, 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는 세계최대규모의 다국적해상군사연습인 《림팩》, 《전과안보받기》연습,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합동군사연습인 《코브라 골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전역에서 항시적으로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는 2010년대 아시아중시전략을 강행추진함으로써 대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전략적대응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대국들사이에 뺑전을 방불케 하는 전략적대립구도를 형성하고있다.

미제의 아시아중시전략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여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버리며 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전략적균형과 안정을 심히 파괴하고 침예한 군사적대결구도를 형성하여 새로운 군비경쟁과 대규모의 전쟁을 포함한 파국적인 사태를 몰아올수 있는 매우 위험한 침략전략이다.

우리는 새 세기 미제의 아시아중시전략의 침략적본질을 똑똑히 알고 철저히 짓부셔버림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